



하나증권 리서치센터 Morning Brief

하루에 하나



2026.9.1

SEPTEMBER

S	M	T	W	T	F	S
		1	2	3	4	5
6	5	8	9	10	11	12
13	12	15	16	17	18	19
20	19	22	23	24	25	26
27	26	29	30			

원/달러 환율

1,368.60원 (-3.90원)

KOSPI

6,820.02 (+31.14 +0.46%)

KOSDAQ

834.29 (-4.12, -0.49%)

국고채 10년 금리

4.313 (+0.029%p)

동 자료는 오늘 발간된 자료의
요약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각 자료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www.hanafn.com



Global Asset Strategy

글로벌 ETF Weekly	ETF 트렌드 & 포트폴리오: 매크로의 시간 [박승진]
New K-ETF	삼성SK그룹+, K신약바이오액티브, 머니마켓액티브 [박승진]
New K-ETF	글로벌 AI낸드 메모리반도체 [박승진]
DIN (Doo It Now)	잭슨홀에서 워시는 무엇을 바꿨나 [김두언]
DIN (Doo It Now)	11월 중간선거 프리뷰 ①데이터센터 [김두언]

기업분석

SK텔레콤	9월 전략 - 호재가 집중되는 구간, 추가 차별화 예상 [김홍식]
LG유플러스	9월 전략 - 3개월 이상 내다보면 추가 전망 밝습니다 [김홍식]
KT	9월 전략 - AI 과금화 전략 긍정적, 확실한 저점은 맞아 [김홍식]

산업분석 Monthly & Weekly

통신서비스 9월 투자 전략	매도 중지, 이제 장기 매수로 전환하세요 [김홍식]
제약바이오 Biweekly	때가 되면 이벤트가 있었던 종목부터 오른다 [김선아]
건설 Weekly	국내 투자의 확대에 건설 수혜(DC/LH) [김승준, 하민호]

글로벌리서치

글로벌 전력기기/에너지	전력 국가비상사태 선포, 트럼프 1기와의 차이점 [김시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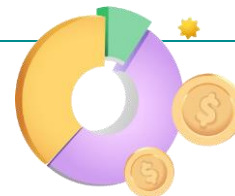
단기투자유망종목

SK하이닉스,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SDI, SK텔레콤, S-Oil, 대한항공, 이수페타시스, 농심,
코오롱인더, 실리콘투

하나증권

글로벌 ETF Weekly

HANA Global Weekly | 2026.8.31



Global ETF 박승진 sj81.park@hanafn.com

RA 신민건 mingun.shin@hanafn.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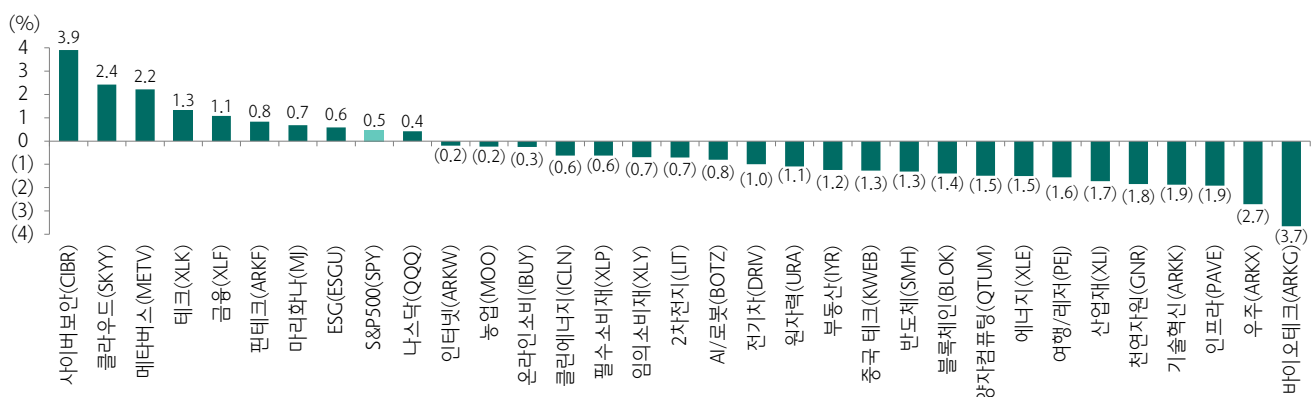
ETF 트렌드 & 포트폴리오: 매크로의 시간

AI 기반의 성장 모멘텀은 유효, 다만 9월의 우선순위 변수는 금리와 유동성: IYW/XLK, QQQ, PAVE, GDX, SPHQ, DIVO 등 활용

- 글로벌 수급:** 글로벌 ETF 시장의 확장 기초가 이어지고 있다. 선진국 중심의 자금 유입 흐름은 지속되었으나, 시장 전체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북미 주식형 ETF 시장으로의 자금 유입 규모가 +84.1억달러에 그치며 최근 5주래 가장 낮은 수준의 수급 흐름을 기록하였다. 신흥국 주식형 ETF 시장의 자금 흐름은 3주 만에 순유입으로 전환되었지만, 아시아 지역에서 -13.3억달러가 유출되면서 전체 순유입 규모는 +7.8억달러에 그쳤다. 글로벌 채권형 ETF 시장에서는 북미 지역으로 +121.4억달러가 유입되며 선진국 채권형 ETF 시장에 총 +134.5억달러가 순유입되었고, 신흥국 채권형 ETF 시장에서도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한 매수세가 3주 연속 이어지면서 총 +22.3억달러의 자금이 유입되었다.
- 종목별 수급:** 미국 ETF 시장의 종목별 자금 흐름을 살펴보면, 증시의 등락이 반복되는 가운데 투자자들의 시각이 엇갈리면서 지수, 섹터, 스타일별 대응 역시 분산되는 모습이 나타났다. 주식형 ETF 종목군에서는 VOO/SPYM(S&P500), QQQ(NASDAQ 100), VTI(US Total), RSP(S&P500 동일가중), IWM(Russell200)으로 총 +141.7억달러가 유입되었다. 이와 함께 SMH/SOXX(글로벌 반도체), SOXL(반도체 3배 레버리지), SCHD(배당주), IEMG(신흥국 증시) 등도 자금 유입 상위 종목에 이름을 올렸다. 반면 SPY/IVV(S&P500), XLF(금융업), DRAM(메모리반도체) 등에서는 자금이 빠져나가며 순유출 상위 종목으로 집계되었다.
- 채권형 ETF** 종목군에서는 VGSB/SPTS/SCHO(단기국채), SGOV(초단기국채), VCIT(중기회사채), MBB(MBS) 등을 중심으로 매수세가 유입되었다. 반면 GOVT(정부채), VGIT(중기국채), HYG/USHY(HY회사채), IEF(중기국채), LQD(IG회사채) 등에서는 투자 자금이 순유출되며 채권 자산 내에서도 만기와 신용등급에 따른 차별화 흐름이 나타났다. 한편 달러화에 대한 신뢰 훼손 우려가 지속되는 가운데 대체자산으로의 자금 유입도 이어졌다. 비트코인 현물 ETF인 IBIT/FBTC에는 총 +11.1억달러가 유입되었으며, 금 현물 ETF인 GLDM/IAU/AUM에도 총 +13.7억달러 규모의 매수세가 순유입되었다.
- ETF 포트폴리오:** 미국 재무부의 정책 대응에도 불구하고 금리 불안과 유동성 환경 변화에 대한 경계심은 지속되고 있다. 지난주 발표된 7월 PCE 지표에서는 물가의 하방 경직성이 확인된 가운데 소비 여력은 약화되었고, 가계 지출의 둔화 흐름이 나타났다. 이어 발표된 Nvidia의 실적을 통해 AI 관련 수요의 견고함과 지속 가능성을 재확인시켜 주었으며, 잭슨홀 미팅에서는 케빈 워시 연준의장이 물가 안정을 위한 금리인상 의지를 강조하였다. 실적 시즌을 통해 AI 산업의 성장과 기업들의 견고한 실적 모멘텀이 확인되었지만, 향후 금융시장에서는 금리와 유동성 등 매크로 변수의 영향력이 다시 확대될 가능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 9월 중순(9/15~16)에 열리는 FOMC를 앞두고, 시장은 먼저 8월 고용보고서(9/4)를 확인하게 될 예정이다.** 지난주 잭슨홀 미팅에서 케빈 워시 연준의장은 물가안정 의지를 강하게 피력하는 한편, 최근 신규고용 증가세 둔화에 대해 노동공급 확대가 제한된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평가하였다. 그러나 여타 서베이 지표의 세부 응답 내용과 소비 관련 지표들을 함께 살펴보면, 고용시장의 구조적 둔화뿐 아니라 가계 구매력 약화를 시사하는 신호들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 양적 판단의 지지 흐름이 이어지는 고용지표의 견조함은 실업수당 청구건수나 전체 고용자 수의 추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다만 한편에서는 구인 수요가 함께 감소하면서 동일한 임금 수준의 일자리를 유지하기 어려워지는 현상과 실질소득 감소, 신규 채용 모멘텀 약화도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실업률과 비농업고용자 수뿐 아니라 업종별 고용 현황, 경제활동참가율, 임금상승률 등 세부 지표들을 함께 점검해야 하는 시기이다.

- 시장에서는 8월 실업률이 지난 7월과 동일한 4.1%를 유지하고, 비농업고용자 수는 -2.3만명에서 +5.5만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당장은 표면적으로 확인되는 고용지표가 연준의 금리인상 명분을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이후에는 고용의 질리티와 소득 여건을 포함한 펀더멘털의 질적 약화에 대한 경계가 점진적으로 확대될 수 있겠다.
- 이번 주가 지나면 FOMC를 앞두고 연준 인사들의 발언이 제한되는 블랙아웃 기간에 진입한다. 7일(월)은 Labor Day로, 통상 미국의 여름 휴가 시즌이 마무리되는 시점으로 인식된다. 금융시장 참가자들의 복귀와 함께 시장 수요가 정상화되면서 회사채 발행을 통한 기업들의 자금 조달도 활발해지는 시기이다. 이에 맞춰 미 재무부는 9월 9일부터 다음 분기 QRA(국채발행계획)가 발표되는 11월 4일까지 장기국채 Buyback 규모를 확대할 예정이다. 9월 15일은 3분기 추정세 납부일로, 세금 납부 과정에서 단기적으로 시장 유동성이 흡수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결국 시장 가격을 결정하는 주요 변수인 실적과 유동성 가운데, 당분간은 회사채 발행 확대와 세금 납부, 국채시장 수급 변화가 맞물리면서 유동성 환경에 대한 경계가 높아질 수 있는 시점이다.
- 현 국면을 기준으로 산업 관점에서 AI의 구조적 성장과 기업들의 실적 모멘텀은 여전히 유효하다. 다만 9월 FOMC를 앞둔 금리 불확실성과 회사채 발행 증가, 추정세 납부에 따른 단기 유동성 흡수 가능성, 장기국채 수급 부담 등을 함께 고려할 경우 당분간은 밸류에이션 확장보다는 실적의 가시성과 지속성, 재무건전성이 상대적으로 더 중요한 투자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겠다. ETF 포트폴리오 구성 측면에서도 성장 모멘텀을 유지하되, 변동성과 유동성 리스크를 함께 관리하는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 Nvidia 실적 확인 이후 채스홀 미팅에서 금리인상 시점이 앞당겨질 수 있다는 해석이 반영되며 금리 커브의 Flattening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장기금리 부담 완화 측면에서 반도체 섹터(SMH/SOXX/DRAM)의 반등 기대를 높일 수 있는 요인이지만, 여전히 높은 변동성을 감수해야 하는 영역에 위치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QQQ/VOO/RSP와 같은 대표 지수형 ETF나 IYW/XLK/VGT 등 기술주 전반에 투자하는 ETF를 중심으로 대응하는 한편, 액티브 운용을 통해 업종 선택과 비중 조절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CHAT/BAI(AI 액티브)도 활용 가능한 선택지가 되겠다.
- 투자 중심의 경기 사이클과 관세-리쇼어링 정책의 모멘텀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는 PAVE(인프라)와 XLI(산업재)에 대한 관심도 유지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기업들의 자금조달 수요가 증가하는 환경에서는 대형 투자은행 중심의 KBWB를, 변동성 확대 국면에서는 QUAL/SPHQ/QGRO 등 퀄리티 ETF를 활용하는 전략도 고려할 수 있겠다. 달러화 신뢰와 재정 부담에 대한 경계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GDX(금광기업), GLDM/IAUM(금 현물) 등 금 관련 ETF 역시 포트폴리오의 헷지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또한 현 국면의 특성을 고려하면 옵션 프리미엄을 활용해 변동성을 낮추면서 현금흐름을 확보하는 DIVO/QDVO와 같은 액티브 커버드콜 ETF 역시 포트폴리오 구성 측면에서 적절한 선택지가 될 수 있다.

주요 테마형, 섹터 ETF들의 주간 수익률



주: 2026.8.24~8.28 기준

자료: Bloomberg, 하나증권

2026년 8월 31일 | Global Asset Research

Global ETF

Compliance Notice

본 조사항목은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New K-ETF

삼성SK그룹+, K신약바이오액티브, 머니마켓액티브

신규 상장 ETF(9/1): KIWOOM 삼성SK그룹TOP4+,

마이티 신약포커스바이오액티브, MIDAS 머니마켓액티브

KIWOOM 삼성SK그룹TOP4+: 한국을 대표하는 삼성과 SK 그룹의 상장사들 가운데 각 그룹의 핵심산업들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기업을 선별하여 구성하는 패시브 ETF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지분 보유회사와 핵심 계열사까지, 각 그룹별로 5개의 주요 종목을 골라 총 10개 기업으로 만드는 포트폴리오의 ETF 종목이 되겠다.

삼성과 SK 각 그룹별로 시가총액 2천억원 이상, 일 평균 거래대금은 10억원 이상인 종목을 추려낸 후, 해당 유니버스에 대한 핵심산업 키워드를 반영한 스코어링 작업을 진행한다. 시가총액 규모까지 함께 고려하여 상위 기업들을 최종 편입 대상으로 선정하며, 상장일(9/1) 기준의 삼성그룹 포트폴리오에는 삼성전자/삼성전기/삼성생명/삼성물산/삼성E&A, SK 그룹 포트폴리오에는 SK하이닉스/SK스퀘어/SK/SKC/ISC가 편입되어 있다.

개별 종목 편입 비중의 경우 각 그룹별로 상위 1개 종목들은 25%(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2위 종목들(삼성전기와 SK스퀘어)은 15%을 할당하며, 나머지 6개 종목들은 유동시가총액 가중방식(Cap Rate: 10% 적용)으로 비중을 배분하게 된다. 연 4회(1월/4월/7월/10월)에 걸쳐 정기 리밸런싱을 진행한다. 총 보수는 0.45%이다.

마이티 신약포커스바이오 액티브: 신약개발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거나 신약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국내 바이오 기업들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액티브 ETF이다. 모멘텀에 따라 주가 변동성이 급격하게 커질 수 있는 영역인 만큼, 0.7의 상관계수 범위 안에서 상대적으로 유연한 대응이 가능한 액티브 방식으로 운용되는 ETF 종목이다.

비교지수인 'FnGuide 신약포커스바이오 지수'는 시가총액 3천억원 이상, 일평균 거래대금 25억원 이상의 유동성 요건을 충족하는 국내 기업을 유니버스로 구성한 뒤, 신약, 임상.파이프라인, 라이선스, CMO, 진단, 의료기기 등 바이오.헬스케어 관련 키워드와의 유사도 점수가 높은 종목들을 편입 대상으로 한다. 진단 관련 노출도가 지나치게 높은 기업은 제외하며, 최종 조정 스코어 기준 상위 20개 종목들이 편입대상으로 선정된다.

개별 종목 편입비중은 유동시가총액 가중방식으로 결정하되, 특정 종목의 비중이 과도하게 높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개별 종목 최대 비중을 Cap Rate의 7.5%로 제한한다. 정기 리밸런싱은 매년 2회(5월/11월의 마지막 영업일)에 걸쳐 진행된다. 0.785%의 총 보수가 적용되는 액티브 ETF이다.

MIDAS 머니마켓 액티브: 대표적인 단기금리 상품 포트폴리오의 액티브 ETF 종목이다. 다양한 변수와 불확실성 요인들이 등장하는 국면에서 회피성 단기 유동자금, 혹은 여유자금 중심의 수요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파킹형 ETF'의 카테고리라 되겠다. 국공채, 회사채, 기업



Global ETF 박승진 sj81.park@hanafn.com
RA 신민건 mingun.shin@hanafn.com

어음 등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

비교지수인 'KIS-Midas 머니마켓 지수'는 잔존만기 5개월의 국고채권과 통안증권, 지역개발채, AA- 등급 이상의 단기채권, A1 등급 이상의 잔존만기 15일~6개월의 CP, CD91 금리 등을 편입 대상으로 하며, 채권 40%, 기업어음 30%, 유동자산(30%)의 비중으로 구성한다. 채권은 일별 교체, 기업어음은 매월 첫 영업일에 정기 리밸런싱이 진행된다. 총 보수는 0.06%가 적용된다.

도표 1. KIWOOM 삼성SK그룹TOP4+, 마이티 신약포커스바이오액티브, MIDAS 머니마켓액티브 ETF 종목 개요

ETF명	KIWOOM 삼성SK그룹TOP4+	마이티 신약포커스바이오액티브	MIDAS 머니마켓액티브
상장일	2026년 9월 1일 화요일	2026년 9월 1일 화요일	2026년 9월 1일 화요일
기초(비교)지수	Akros 삼성SK그룹 TOP4+ 지수	FnGuide 신약포커스바이오 지수	KIS-Midas 머니마켓 지수
복제방법	실물(패시브)	실물(액티브)	실물(액티브)
1좌당 가격	10,000원	10,000원	10,000원
총 보수	0.45%	0.785%	0.06%
구성종목 수	10종목	20종목	835종목 (‘26년 7월 말 기준)
비중결정방식	- 그룹별 상위 2종목(총 4개): 시가총액순 25%, 15% 차등 부여 (총 80%) - 나머지 6종목: 잔여 비중은 유동시가총액 가중 배분 (총 20%)	유동시가총액 가중방식	- 채권(40%): 종목별 시가총액 가중방식 - 기업어음(30%): 액면금액 동일가중방식 - 유동자산(30%): CD 91일물 배분
정기변경	연 4회 (1, 4, 7, 10월 마지막 영업일)	연 2회 (매 5, 11월 마지막 영업일)	- 채권 : 일별교체 - 기업어음 : 매월 첫 영업일

자료: KRX, 하나증권

2026년 8월 31일 | Global Asset Research

Global ETF

Compliance Notice

본 조사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New K-ETF

글로벌 AI낸드 메모리반도체

신규 상장 ETF(9/1)

- RISE 글로벌 AI낸드 메모리반도체

RISE 글로벌 AI낸드 메모리반도체: 한국, 미국, 일본의 낸드 플래시 및 낸드 기반 스토리지 관련 기업들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패시브 ETF이다. AI가 처리하는 데이터 규모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데이터를 저장하고 공급하는 스토리지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구조적인 수요 확대가 기대되는 낸드 산업에 집중하는 ETF 종목이 되겠다

AI의 중심축이 학습에서 추론(Inference) 영역으로 확대되는 과정에서 데이터 저장 공간에 대한 수요가 함께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클라우드 사업자들을 중심으로 한 기업용 SSD 수요 확대를 통해 가시화되고 있다. RISE 글로벌 AI낸드 메모리반도체 ETF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Kioxia, SanDisk, Micron 등 소수의 핵심 기업이 높은 시장 점유율(상위 5개사가 약 90%)을 차지하고 있는 낸드 산업의 특성을 고려해 10개 기업으로 구성된 집중형 포트폴리오를 구축한다.

한국, 미국, 일본 증시에 상장된 기업을 대상으로 NAND Flash, 3D NAND, Flash Memory, NAND Controller, SSD, HDD 등 낸드 플래시 및 스토리지 솔루션 관련 키워드를 반영하여 스코어링 작업을 진행한다. 이어 시가총액 5천억원 이상, 평균 거래대금 10억원 이상의 정량 조건을 충족하는 기업들 가운데 키워드 스코어가 높은 상위 10개 종목을 최종 편입 대상으로 선정한다.

개별 종목 편입 비중은 키워드 스코어 상위 4개 기업들에 대하여 각각 17.5%씩 총 70%를 할당하고, 나머지 6개 기업들은 30%의 비중에 대하여 10%의 Cap Rate으로 상한을 제한하면서 시가총액 가중방식으로 편입한다.

상장일(9/1) 기준 포트폴리오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SanDisk, Kioxia Holdings, Micron, Lam Research, Seagate Technology, Western Digital, Marvell Technology, Tokyo Electron의 10개 기업들이 편입되어 있다.

포트폴리오의 정기 리밸런싱은 매년 2회(6월과 12월의 한국 옵션만기일 익주 첫 영업일)에 걸쳐 진행된다. 0.45%의 총 보수가 반영되는 패시브 ETF이다.



Global ETF 박승진 sj81.park@hanafn.com
RA 신민건 mingun.shin@hanafn.com

도표 1. RISE 글로벌 AI낸드 메모리반도체 ETF의 종목 개요

ETF명	RISE 글로벌AI낸드메모리반도체
상장일	2026년 9월 1일 화요일
기초지수	iSelect 글로벌AI낸드메모리반도체지수
복제방법	실물(패시브)
1좌당 가격	10,000원
총 보수	0.45%
구성종목 수	10종목
비중결정방식	- 상위 4종목(70%): 키워드 스코어 기준 동일가중 배분 (각 17.5%) - 하위 6종목(30%): 시가총액 가중 배분 (개별 종목 비중 10% 상한)
정기변경	연 2회 (매 6월, 12월 한국 옵션만기일 익주 첫 영업일)

자료: KRX, 하나증권

2026년 8월 31일 | Global Asset Research

Equity

DIN (Doo It Now)

잭슨홀에서 워시는 무엇을 바꿨나

Compliance Notice

본 조사항목은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잭슨홀에서 케빈 워시는 금리 인상을 선언하지 않았다. 대신 금리 인상 가능성을 다시 정책의 선택지로 복원했다. 더 중요한 변화는 따로 있다. Fed가 시장에 향후 금리 경로를 친절하게 알려주던 시대가 끝나고 있다. 앞으로 시장은 Fed를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물가와 경기, 그리고 금융시장의 숫자를 직접 판단해야 한다. 주식시장 역시 금리 하락을 기다리기보다 높은 금리를 이겨낼 수 있는 이익을 찾아야 한다.

워시의 첫 번째 변화는 금리의 상단을 다시 열었다는 것이다. 그는 “기조적 인플레이션이 2% 목표를 향해 명확하고 충분히 빠르게 움직인다는 확신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다면 해야 할 일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7월 PCE 물가는 전년비 3.7%, 최근 6개월 상승률은 4.1%다. 반면 실업률은 4.1%로 안정적이다. 지금 Fed가 우선해야 할 것은 고용 방어보다 물가 안정이라는 메시지가 분명하다.

시장은 즉각 반응했다. 9월 FOMC에서 25bp 인상할 확률은 잭슨홀 이전 35%에서 57%로 상승했고, 미국 2년물 금리는 4.22%에서 4.35%로 뛰었다. 워시는 9월 인상을 약속하지 않았다. 그러나 적어도 시장이 가지고 있던 ‘동결이 기본값’이라는 믿음은 깨뜨렸다. 앞으로 금리는 인하와 동결뿐 아니라 인상까지 포함한 양방향 변수가 됐다.

두 번째 변화는 포워드 가이드의 후퇴다. 워시는 금융위기 이후 자리 잡은 포워드 가이드가 정상적인 환경에서는 오히려 시장을 왜곡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시장은 Fed를 보고, Fed는 다시 시장가격을 보는 이른바 ‘Hall of Mirrors’를 경계했다. 결론은 명확하다. “결정(decision)이 아니라 규율(discipline)에 전념한다.” 앞으로 Fed는 금리 경로를 미리 약속하기보다 데이터가 변하면 판단도 바꿀 것이라는 의미다. 결과적으로 통화정책의 예측 가능성은 낮아지고 금리 변동성은 구조적으로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세 번째 변화가 주식시장에는 가장 중요하다. 좋은 경기가 반드시 좋은 금리를 의미하지 않는다. 미국 기업의 설비 및 무형자산 투자는 전년비 약 9% 증가해 2021년 이후 최고이며, 올해 CAPEX 증가분의 절반 이상을 AI 구축이 차지하고 있다. S&P500 기업 이익도 지난 1년간 20% 이상 증가했다. 회사채 스프레드는 역사적 저점권이고 대출시장에서도 긴축의 흔적이 뚜렷하지 않다. 워시는 이를 근거로 현재의 금융여건을 “제약적이라고 표현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따라서 AI 투자 확대는 이제 주식시장에 양날의 검이다. AI CAPEX는 반도체와 데이터센터 기업의 이익을 키우지만, 동시에 미국 경기와 금융여건을 강하게 만들어 Fed의 금리 인상 명분도 높인다. AI 투자가 강할수록 금리가 내려갈 것이라는 기존 공식은 더 이상 성립하지 않



국내외 주식시장 김두연 kimdooun@hanafn.com
주식시장 RA 최욱 wookchoi@hanafn.com

을 수 있다.

한국 주식시장의 대응도 달라져야 한다. 금리 하락을 사는 전략에서 이익 성장을 사는 전략으로 이동해야 한다. 할인을 상승에 취약한 고PER, 무이익 성장주의 부담은 커진다. 반대로 높은 금리를 이길 만큼 EPS가 증가하는 반도체와 HBM, AI CAPEX의 물리적 병목을 해소하는 전력기기, 변압기, 전선, 냉각, 데이터센터 인프라의 상대적 매력은 유지된다. 특히 위시가 직접 AI 투자를 미국 CAPEX 확대의 핵심으로 지목했다는 점은 중요하다.

잭슨홀에서 바뀐 것은 금리 전망이 아니다. 투자자의 질문이다. 이제 질문은 “어떤 기업의 이익이 높은 금리를 이겨낼 수 있는가”다. 위시는 금리의 방향을 바꾼 것이 아니라, 금리를 바라보는 시장의 문법을 바꿨다

도표 1. 2026년 잭슨홀에서의 케빈 위시의 주요 메시지와 관전 포인트

위시의 메시지	포인트
물가 2%는 “firm, fixed target”	2%가 장기 평균이나 유연한 목표가 아니라 고정된 목표라고 못 박음
물가가 충분히 빨리 내려가지 않으면 “we have work to do”	금리 인상 가능성을 사실상 다시 열어놓은 표현
65 개월간 지속된 높은 물가의 책임은 중앙은행에 있다	연준 의장이 과거 연준의 정책 실패를 이렇게 직접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강한 표현
포워드 가이드런스 시대는 끝났다	앞으로 시장이 연준의 힌트를 미리 받아 금리경로를 확정하는 방식이 약해짐
“committed to a discipline, not to a decision”	특정 금리결정을 약속하지 않고 원칙만 약속하겠다는 ‘위시식 전략적 모호성’
AI 는 잠재적인 “new factor of production”	AI 를 단순 산업이 아니라 노동·자본과 경제성장을 바꾸는 생산요소 후보로 규정

자료: 잭슨홀 미팅, 하나증권

2026년 9월 1일 | Global Asset Research

Equity

DIN (Doo It Now)

11월 중간선거 프리뷰 ①데이터센터

Compliance Notice

본 조사항목은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자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11월 미국 중간선거의 핵심 정치 변수는 데이터센터다. 연방정부는 AI 패권을 위해 대형 프로젝트(100MW 이상)의 인허가를 앞당기지만, 주정부와 지역사회는 전기료, 전력망, 용수, 토지 부담 등을 이유로 속도를 늦추고 있다. AI 수요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허가와 전력 연결이 늦어지면서 투자금이 매출로 돌아오는 시간이 길어지는 문제다. 한국 주식시장에서는 메모리를 코어로 유지하되 데이터센터의 시간을 줄이는 전력, 발전, ESS, 냉각을 함께 보유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8월 마지막 주 시장에 남은 첫 번째 단어는 금리다.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은 잭슨홀에서 2% PCE 물가 목표를 확고한 기준으로 규정했다. 12개월 PCE 상승률은 3.7%, 최근 6개월 연율은 4.1%다. 시장은 매파적으로 반응했다. CME에서의 9월 금리 인상 확률은 연설 전 35%에서 57%로 높아졌고, 미 국채 2년물 금리는 하루 12.8bp 오른 4.36%를 기록했다. 금리가 다시 올라갈 수 있다는 가능성은 AI 투자의 자본비용을 높인다.

두 번째 단어는 LPS(Land/Power/Shell)다. 엔비디아 FY2027 2분기 매출은 962억달러로 전년 대비 106% 증가했고, 데이터센터 매출은 890억달러로 117% 늘었다. 다음 분기 매출 가이던스도 1,080억달러다. AI 수요가 꺾였다는 증거보다 이 수요를 담을 물리적 공간이 부족하다는 증거가 더 많다. 엔비디아가 오하이오 PORTS-Pike에서 확보한 초기 LPS는 4.25GW이며 추가 3.75GW 옵션도 갖고 있다. 오픈AI의 기존에 계획된 엔비디아 컴퓨터 수요는 2030년까지 약 12GW다. GPU의 병목이 LPS로 이동했다기보다 GPU와 HBM에서 전력, 부지, 건물, 금융까지 병목의 범위가 넓어졌다. Compute를 확보하는 경쟁에서 Compute를 실제로 가동할 공간과 전력을 확보하는 경쟁으로 전선이 확장된 셈이다.

문제는 이 변화가 빅테크의 현금흐름 부담과 동시에 나타난다는 점이다. Microsoft, Alphabet, Amazon, Meta, Oracle 등 주요 기업의 AI 인프라 투자 규모는 올해 7,000억달러를 넘어설 전망이다. CAPEX 증가 속도가 영업현금흐름을 앞지르면서 AI는 플랫폼 기업을 다시 자본집약적 산업으로 바꾸고 있다. 데이터센터의 6개월은 과거의 6개월보다 비싸다. CAPEX는 먼저 집행되지만 클라우드와 AI 서비스 매출은 센터가 가동돼야 발생한다. 지연은 투자를 없애지 않는다. 투자금의 회수기간을 늘린다.

여기에 정치가 더해졌다. 연방정부의 방향은 명확하다. 트럼프 행정부는 2025년 7월 행정명령(14318호)을 통해 신규 부하가 100MW를 넘는 AI 데이터센터를 정책 지원 대상으로 규정하고, 대형 프로젝트에 FAST-41 신속 심사, NEPA(국가환경정책법) 절차 간소화, 연방부지 활용을 추진했다. EPA(미국 환경보호국)도 올해 7월 경미한 대기오염원 인허가에서 연방 차원의 최소 주민참여 요건을 없애는 방안을 제안했고, 독립형 자가발전 설비의 규제 적용을



국내외 주식시황 김두연 kimdooun@hanafn.com
주식시황 RA 최욱 wookchoi@hanafn.com

명확히 해 데이터센터의 자체 전원 구축 여지를 넓혔다. 연방은 AI 패권을 위해 허가의 시간을 줄이고 있다.

하지만 주정부와 지역사회는 반대편에서 브레이크를 밟는다. 뉴욕은 7월 14일 신규 하이퍼스케일 데이터센터에 1년간 주 전역 모라토리엄을 도입했다. 텍사스는 8월 3일 ERCOT에 접수된 데이터센터 전력 연결 프로젝트를 전면 감사하고, 검증이 끝날 때까지 진행을 제한했다. 당시 대규모 연결 요청은 474GW를 넘었다. 펜실베이니아는 8월 18일 모든 데이터센터를 주 정부의 Permit Fast Track(연방정부 인허가 절차 가속화) 대상에서 제외하고, 지역 송인과 전력, 용수, 환경 정보 공개를 요구했다. 최대 데이터센터 허브인 버지니아도 100MW 이상 고전력 시설에 지방정부 승인 전 현장 영향평가를 요구하고, 2026년 7월부터 데이터센터 전력 소비에 kWh당 1.1센트의 별도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이 갈등이 민주당과 공화당의 단순한 대립이 아니라는 점이다. 공화당의 연방 정부는 데이터센터 건설을 밀어붙이지만 공화당 텍사스 주정부는 심사를 강화했다. 민주당 뉴욕과 펜실베이니아 역시 규제를 강화했다. 반대로 연방정부도 2026년 Ratepayer Protection Pledge(요금 납부자 보호 서약)를 통해 하이퍼스케일러가 신규 발전과 송배전망 비용을 직접 부담하고 별도 요금체계를 적용받도록 요구했다. 결국 선거가 만든 새로운 허가 조건은 하나다. “짓지 말라”가 아니라 “지역 주민에게 비용을 넘기지 말고 지어라”다.

그래서 투자전략 관점에서 11월 3일 중간선거의 핵심을 데이터센터로 본다. 데이터센터는 AI라는 추상적 기술을 전기료, 수도, 토지, 세금이라는 생활비 문제로 바꾸는 물리적 접점이다. Pew 리서치에서 미국 성인의 54%는 전기료를 매우 우려했고, 최근 에너지 비용이 오른 응답자 가운데 43%는 데이터센터의 전력 사용을 주요 원인으로 지목했다. 최근 미국 선거 보도에서도 데이터센터 반발은 하원, 상원, 주지사 선거를 가로지르는 쟁점으로 부상했다. 중간선거가 가까워질수록 인허가의 정치적 문턱이 낮아지기보다 ‘비용 부담의 주체’를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고 AI 수요의 방향이 바뀌었다고 볼 단계는 아니다. CBRE에 따르면 북미 8개 핵심 데이터센터 시장의 건설 중 용량은 올해 상반기 7.48GW로 전년 대비 24.8% 늘었고, 북부 버지니아 공실률은 0.3%에 불과하다. 수요 부족보다 공급 부족이 여전히 더 크다. 문제는 수요의 존폐가 아니라 수요가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매출로 전환되는 속도다. 연방과 주정부의 인허가 충돌은 프로젝트를 없애기보다 입지와 완공 시점을 바꿀 가능성이 높다.

한국 반도체에 던지는 위험도 수요 파괴보다 매출 인식의 지연에 가깝다. 데이터센터가 늦어지면 HBM과 서버 DRAM, 기업용 SSD의 출하가 뒤로 밀릴 수 있다. 그러나 엔비디아의 매출과 가이던스가 보여주듯 최종 수요는 아직 견조하다. 앞으로는 하이퍼스케일러의 CAPEX 총액만 볼 것이 아니라 데이터센터 가동 예정일, 전력망 연결, 연방·주·지방정부 허가, HBM 주문 취소와 고객 재고를 함께 점검해야 한다.

포트폴리오의 답은 GPE(Grid(망), Power(전력), Efficiency(효율성))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AI 수요의 코어로 두되 지연을 해결하는 기업을 함께 편입하는 바벨 전략이다. 전기를 가져오는 측에서는 HD현대일렉트릭, LS ELECTRIC 그리고 효성중공업이 중요하다. Grid 연결이 늦어질수록 자체 발전의 가치도 높아진다. 두산에너지빌리티와 HD현대중공업은 데이터센터

터용 발전설비 수요의 직접 수혜가 가능하다. LG에너지솔루션의 ESS와 LG전자의 액체냉각 역시 전력 병목과 GPU 전력밀도 상승을 해결하는 인프라다.

AI 투자 사이클의 질문은 변하고 있다. 처음에는 “GPU가 충분한가”였다. 이후 “전력과 데이터센터가 충분한가”를 물었다. 이제는 “누가 비용을 부담하고, 언제 허가를 받아, 제때 완공해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가”를 물어야 한다. 데이터센터 지연을 걱정한다면 반도체를 버릴 이유는 없다. 반도체와 지연을 해결하는 기업을 함께 사야 한다.

AI의 다음 주도주는 GPU와 HBM을 더 만드는 기업만이 아니다. GPU를 제때 쫓고, 전기를 공급하고, 허가의 시간을 줄여 매출로 전환시키는 기업까지가 하나의 주도주다.

2026년 09월 01일 | 기업분석_기업분석(Report)

BUY (유지)

목표주가(12M) 140,000원
현재주가(8.31) 94,200원

Key Data

KOSPI 지수 (pt)	6,820.02
52주 최고/최저(원)	125,200/52,100
시가총액(십억원)	20,233.2
시가총액비중(%)	0.38
발행주식수(천주)	214,790.1
60일 평균 거래량(천주)	1,587.9
60일 평균 거래대금(십억원)	152.0
외국인지분율(%)	34.28
주요주주 지분율(%)	
SK 외 9인	30.60
국민연금공단	8.46

Consensus Data

	2026	2027
매출액(십억원)	17,661.9	18,011.2
영업이익(십억원)	1,962.2	2,079.7
순이익(십억원)	1,339.2	1,403.7
EPS(원)	6,246	6,546
BPS(원)	65,030	68,265

Stock Price**Financial Data** (십억원, %, 배, 원)

투자지표	2024	2025	2026F	2027F
매출액	17,940.6	17,099.2	17,658.9	18,217.8
영업이익	1,823.4	1,073.2	1,946.6	2,013.5
세전이익	1,761.8	722.3	1,710.5	1,726.5
순이익	1,250.2	408.4	1,285.2	1,273.0
EPS	5,810	1,901	5,983	5,927
증감율	16.27	(67.28)	214.73	(0.94)
PER	9.50	28.14	16.48	16.64
PBR	1.01	0.89	1.35	1.31
EV/EBITDA	3.73	4.41	4.88	4.29
ROE	10.83	3.33	9.04	8.05
BPS	54,898	60,299	72,918	75,215
DPS	3,540	1,660	3,600	3,800



Analyst 김홍식 pro11@hanafn.com

RA 이상훈 sanghunlee0121@hanafn.com

SK텔레콤 (017670)**9월 전략 – 호재가 집중되는 구간, 주가 차별화 예상****매수/TP 14만원/통신서비스업종 Top Pick 유지, 전 고점 돌파 시도 있을 것**

SKT에 대한 투자 의견 매수, 12개월 목표주가 14만원을 유지한다. 더불어 국내 통신서비스업종 12개월/9월 Top Pick으로 제시한다. 추천 사유는 1) 자회사인 SK하이퍼를 SPC 형태로 운영함에 따라 수익성에 기반한 데이터 센터 운영과 더불어 SKT 배당금 재원 증대가 예상되고, 2) 상반기 실적을 바탕으로 볼 때 연간 연결 영업이익이 2조원에 육박할 가능성이 높아 비과세배당이 적용되는 4분기 세후 DPS가 1,050원에 달할 전망이며, 3) 가을 이후 국내에서도 AI 기지국으로 진화, 5G SA 도입 이슈가 거세질 것이라 관련 수혜주인 SKT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 증대가 예상되고, 4) ARPU/이익/배당 성장 기대감이 높아질 시기임을 감안하면 3.8%에 달하는 기대배당수익률이 충분히 매력적으로 평가되기 때문이다.

실적/배당/5G/AI 성과 모든 호재 집중될 수 있는 구간에 진입

9월에도 SKT 주가 전망을 긍정적으로 유지하는 이유는 실적, 배당, 5G, AI 관련 호재가 집중될 시점이기 때문이다. 상반기 실적이 당초 예상보다 우수하게 나타남에 따라 2026년 4분기 배당 증가 기대감이 높아질 것이며 미국의 주파수 경매 본격화는 국내 규제 기관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당연히 SKT를 위주로 신규 주파수 할당 및 5G 요금제 개편, 5G SA 상용화와 더불어 AI 기지국 보급 확대 정책이 논의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결국 AI의 양대 성장 축인 AI 데이터센터와 더불어 AI 기지국 확산이 국가 정책과 더불어 SKT 성장 방안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으며 SKT 국책 AI 사업자 선정과 함께 국내 AI 대표주자로 우뚝 설 전망이다. 따라서 국내 후발사업자들과는 다른 형태의 주가 흐름이 예상된다.

밸류에이션 논란 없어질 것, 장기 이익/배당 성장성 감안 시 주가 여전히 매력적

일부에선 후발 사업자 대비 낮은 기대배당수익률, 높은 PBR을 약점으로 지적하는데 국내 AI 관련주로서의 실체를 가장 잘 입증할 것이란 점과 엔트로픽 보유 지분 가치 상승을 감안하면 고평가 근거는 없다는 판단이다. SK하이퍼를 통한 배당 재원 유입 가능성, 엔트로픽 지분 가치 최대 8조원 형성 가능성을 감안하면 그렇다. 장기 DPS 성장 기대감이 높은 통신주의 Multiple은 항상 높게 형성된 바 있다. 후발사업자와의 단순 비교는 무리가 있다는 판단이다. 과거 DPS 성장 기대감이 높은 통신주와 그렇지 않은 통신주간의 기대배당수익률 차이는 1%p 이상으로 벌어져 거래된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어찌 보면 2025년의 KT와 2026년 SKT의 상황이 흡사하다는 판단이다. 2027년 5G SA 도입과 더불어 AI 기지국 설립 본격화가 예상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연내 전 고점인 14만원 재돌파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다.

도표 1. SK텔레콤의 분기별 수익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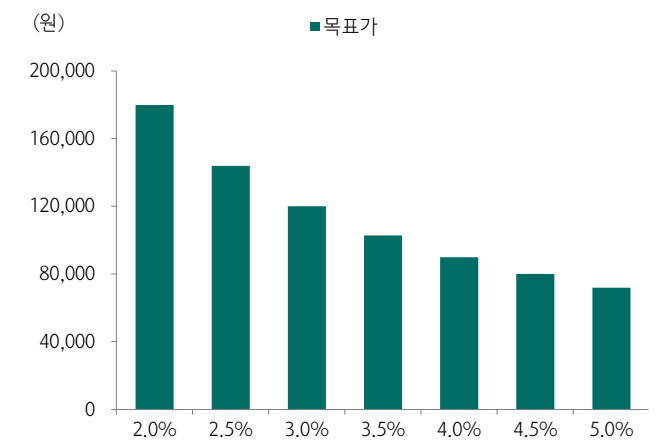
(단위: 십억원, %)

구분	1Q25	2Q25	3Q25	4Q25	1Q26	2Q26	3Q26F	4Q26F
매출액	4,453.7	4,338.8	3,978.1	4,328.7	4,392.3	4,359.1	4,445.4	4,462.1
영업이익	567.4	338.3	48.4	119.1	537.6	566.0	530.8	312.2
(영업이익률)	12.7	7.8	1.2	2.8	12.2	13.0	11.9	7.0
세전이익	507.9	240.4	(163.9)	137.8	465.6	572.0	450.8	222.2
순이익	364.4	89.6	(158.2)	112.5	322.4	470.6	332.1	160.1
(순이익률)	8.2	2.1	(4.0)	2.6	7.3	10.8	7.5	3.6

주: IFRS 15 연결 기준, 순이익은 지배주주귀속분

자료: SK텔레콤, 하나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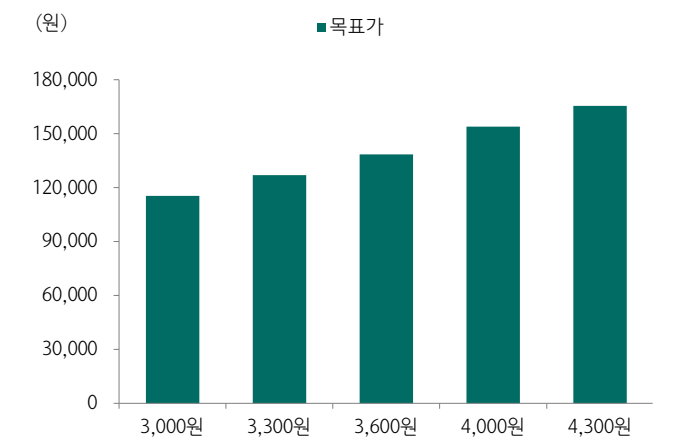
도표 2. 기대배당수익률 변화에 따른 SKT 목표가 산정



주: 2026년 DPS 3,600원 가정

자료: 하나증권

도표 3. SKT DPS 변화에 따른 목표가 산정



주: 기대배당수익률 2.6% 가정

자료: 에프앤가이드

2026년 09월 01일 | 기업분석_기업분석(Report)

BUY (유지)

목표주가(12M) 20,000원
현재주가(8.31) 14,990원

Key Data

KOSPI 지수 (pt)	6,820.02
52주 최고/최저(원)	17,810/13,900
시가총액(십억원)	6,362.1
시가총액비중(%)	0.11
발행주식수(천주)	424,427.7
60일 평균 거래량(천주)	1,117.5
60일 평균 거래대금(십억원)	16.7
외국인지분율(%)	41.48
주요주주 지분율(%)	
LG 외 3인	38.75
국민연금공단	7.48

Consensus Data

	2026	2027
매출액(십억원)	15,395.0	15,806.4
영업이익(십억원)	1,149.8	1,233.3
순이익(십억원)	728.4	811.5
EPS(원)	1,729	1,932
BPS(원)	21,980	23,196

Stock Price**Financial Data** (십억원, %, 배, 원)

투자지표	2024	2025	2026F	2027F
매출액	14,625.2	15,451.7	15,420.3	16,347.1
영업이익	863.1	892.1	1,115.4	1,185.5
세전이익	450.6	680.5	930.8	999.2
순이익	374.5	523.9	714.2	806.9
EPS	858	1,208	1,675	1,901
증감율	(39.83)	40.79	38.66	13.49
PER	12.04	12.19	8.97	7.90
PBR	0.52	0.71	0.69	0.66
EV/EBITDA	3.09	3.52	2.88	2.56
ROE	4.40	6.01	7.87	8.47
BPS	19,825	20,770	21,615	22,789
DPS	650	660	700	750



Analyst 김홍식 prol1@hanafn.com
RA 이상훈 sanghunlee0121@hanafn.com

LG유플러스 (032640)**9월 전략 – 3개월 이상 내다보면 주가 전망 밝습니다****매수 의견 유지/TP 20,000원 유지, 길게 보면 적극 매수할 시점**

LGU+에 대한 투자 의견 매수, 12개월 목표주가를 20,000원을 유지한다. 1) 상반기 어닝 서프라이즈로 2026년 높은 연결영업이익 성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도 향상이 예상되고, 2) 2027년에는 자사주 소각 규모 증대를 바탕으로 총 주주환원금액 증가가 기대되며, 3) 장기 이익 성장 흐름을 바탕으로 보면 밸류에이션상 매력적인 수준이기 때문이다. 8월 자사주 매입에도 불구하고 부진한 주가 흐름이 이어지고 있지만 특별한 매도 주체가 출현할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고려하면 가을 이후 점진적 주가 상승이 나타날 수 있을 것이란 판단이다.

사실상 2026년은 20% 이상 영업이익 증가 유력, 2027년엔 주주 환원 증가할 것

LGU+는 상반기 우수한 실적을 기록하였다. 실적만 보면 3사 중 가장 돋보였는데 해킹 이슈로 인한 가입자 감소 충격이 없었고 희망퇴직 단행에 따른 인건비 및 제반 비용 감소가 유의미한 수준으로 나타났기 때문이었다. 물론 하반기엔 상반기보다는 낮은 연결영업이익 기록이 예상된다. 올해는 실적 호전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이 불가피할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센티브 지급액을 감안해도 2026년 LGU+의 연결 영업이익은 1.1조원 수준은 무난할 전망이다. 2027년 역시 LGU+의 이익 성장 구조는 지속될 것이다. 서비스매출액 감소 가능성이 낮고 영업비용 증가 이슈가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렇다. 2027년에는 900억원에 달하는 자사주 소각과 더불어 3천억원에 달하는 배당금 지급이 가능할 전망이다. 다시 주주환원 규모 증가 가능성이 높다. 2026년 실적이 확실한 윤곽을 나타내고 2027년 주주환원으로 투자자들의 시각이 옮겨가면서 주가 상승이 나타날 것이란 판단이다.

연내 18,000원 이상의 주가 형성 가능, 20% 수준의 안정적 차익 실현 전망

현재 LGU+ 주가로 보면 가격 메리트와 배당 매력도가 부각될 수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15,000원 수준에서는 적극적인 저점 매수에 나설 것을 권한다. 아직은 자사주 취득에 따른 수급 개선이 잘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실적이나 배당, 장기 서비스 매출액 성장 기대감 부각 가능성을 고려하면 특별한 매도 주체가 없을 것이다. 점진적 수급 개선이 예상된다. 더불어 연말로 다가가면서 2027년 실적 및 주주환원으로 투자자들의 시각이 이동할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LGU+의 투자 매력도가 높아질 수 있다. 따라서 내년도까지 길게 보면 LGU+의 주가 전망은 밝다. 아직은 금리 인상이 지속되고 있지만 만약 미국과 더불어 국내에서도 연말부터 시중 금리 하락이 나타난다면 LGU+의 기대배당수익률이 충분히 부각될 수 있을 전망이다. 연내 4% 기대배당수익률 수준인 18,000원 이상에서의 주가 형성은 무난해 보인다.

도표 1. LGU+의 분기별 수익 예상

(단위: 십억원, %)

구분	1Q25	2Q25	3Q25	4Q25	1Q26	2Q26	3Q26F	4Q26F
매출액	3,748.1	3,844.4	4,010.8	3,848.4	3,803.7	3,694.9	3,926.2	3,995.4
영업이익	255.4	304.5	161.7	170.5	272.3	344.5	323.3	175.4
(영업이익률)	6.8	7.9	4.0	4.4	7.2	9.3	8.2	4.4
세전이익	200.5	272.3	104.8	102.8	222.5	315.1	273.9	119.4
순이익	162.5	217.1	49.1	80.6	176.0	217.7	219.2	95.5
(순이익률)	4.3	5.6	1.2	2.1	4.6	5.9	5.6	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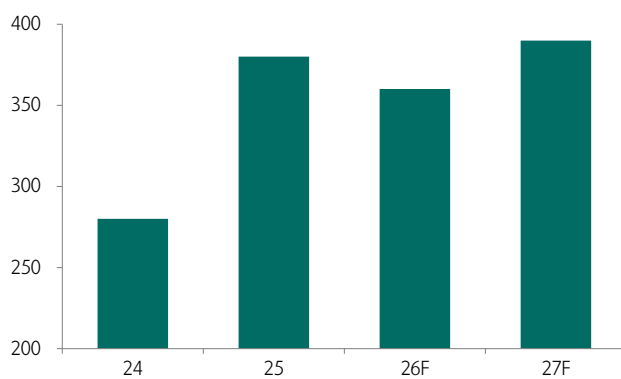
주: 연결 기준

자료: LGU+, 하나증권

도표 2. LGU+의 주주환원 규모 전망

(십억원)

■ LGU 주주환원 규모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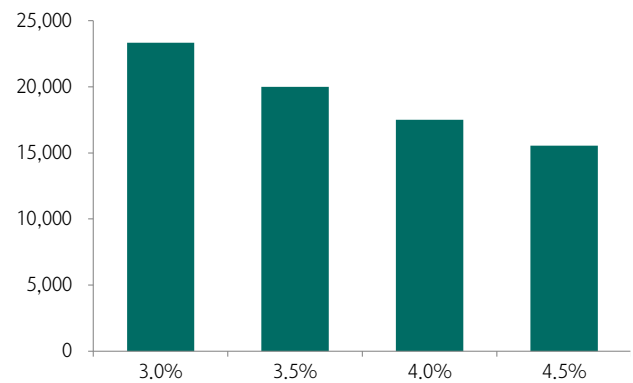


자료: LGU+, 하나증권

도표 3. 기대배당수익을 감안한 LGU+ 목표가 산정

(원)

■ 목표가



주: DPS 700원 가정

자료: LGU+, 하나증권

2026년 09월 01일 | 기업분석_기업분석(Report)

BUY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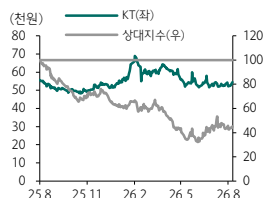
목표주가(12M) 76,000원
현재주가(8.31) 53,400원

Key Data

KOSPI 지수 (pt)	6,820.02
52주 최고/최저(원)	68,900/48,250
시가총액(십억원)	13,457.9
시가총액비중(%)	0.25
발행주식수(천주)	252,021.7
60일 평균 거래량(천주)	426.8
60일 평균 거래대금(십억원)	23.0
외국인지분율(%)	49.00
주요주주 지분율(%)	
연대자동차 외 1인	8.07
국민연금공단	7.05

Consensus Data

	2026	2027
매출액(십억원)	27,399.2	28,012.2
영업이익(십억원)	2,111.2	2,252.1
순이익(십억원)	1,558.9	1,664.8
EPS(원)	5,711	6,197
BPS(원)	78,754	82,578

Stock Price**Financial Data**

(십억원, %, 배, 원)

투자지표	2024	2025	2026F	2027F
매출액	26,431.2	28,244.2	27,767.0	29,466.9
영업이익	809.5	2,469.1	2,049.7	2,088.5
세전이익	584.7	2,418.1	2,090.2	2,133.8
순이익	470.3	1,731.0	1,447.7	1,521.1
EPS	1,850	6,869	5,745	6,035
증감율	(52.41)	271.30	(16.36)	5.05
PER	23.70	7.66	9.49	9.03
PBR	0.67	0.73	0.70	0.67
EV/EBITDA	4.31	3.63	3.94	3.77
ROE	2.85	10.22	7.91	7.83
BPS	65,177	71,886	77,633	81,414
DPS	2,000	2,400	2,400	2,400



Analyst 김홍식 prol11@hanafn.com

RA 이상훈 sanghunlee01211@hanafn.com

KT (030200)**9월 전략 – AI 과금화 전략 긍정적, 확실한 저점은 맞아****투자의견 매수, 목표가 76,000원으로 유지, 2027년도 보고 매수할 것을 추천**

KT에 대한 투자 의견을 매수, 12개월 목표주가를 76,000원으로 유지한다. 매수 추천 사유는 1) AI 결합 요금제 출시로 이동전화 ARPU 성장 기대감 상승이 예상되고, 2) 장기 이익 성장 흐름이 나타날 수 있음을 감안하면 현재 PBR은 매력적인 수준이며, 3) 상반기 실적이 모두 발표됨에 따라 2026년 연결 영업이익 감소, 본사 영업이익 정체 가능성을 대다수 투자자들이 인지한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악재가 모두 주가에 반영된 상황이라고 보면 당장 탄력적인 주가 상승 반전이 나타나긴 어렵겠지만 주가 바닥을 굳히면서 서서히 2027년 이후 서비스 매출액 증가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다.

AI 과금화 시도 긍정적, 2027년 ARPU 성장 감안하면 주가 절대 저평가 상태

KT는 8월 AI 결합 요금제를 출시했다. KT가 구글 AI 플러스(400GB)를 통합한 초이스 요금제 라인업으로 월 9만원대부터 13만원대까지 구성되어 있다. 요금제에 따라 해외 로밍 속도, 공유 데이터, 스마트기기 혜택 등이 달라진다. 물론 아직은 시장 파장이 크지 않고 관심도 높지 않은 편이다. 본격적인 AI 과금화에 나섰다고 볼 수 없으며 경쟁사들의 대응도 미지근한 편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2027년 AI 기지국 설립이 본격화되고 신규 주파수에 대한 투자 부담 증가로 5G 요금제 개편이 본격화 된다고 보면 사정이 다르다. 5G/6G의 킬러 서비스가 피지컬 AI로 인식될 수 있기 때문이다. AI 트래픽 증가가 통신사 투자 증대와 더불어 요금제 업셀링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진행될 수 있음을 감안하면 현 KT 주가는 저평가 상황이라는 판단이다. 장기 투자 관점에서 비중 확대에 나설 것을 권한다.

올해 본사 이익/배당 정체 가능성 이미 주가에 반영, 2027년으로 시각 바꾸어야

사실 올해 KT 주가 부진은 비용 증가에 따른 2026년 본사 이익 정체, DPS 정체가 결정적 원인이었다. 여기에 외인 지분 한도로 자사주 소각이 어렵고 자사주 소각분을 배당으로 전환하는 데 따른 부담이 있다는 점 역시 주가 상승의 걸림돌로 작용하였다. 하지만 이젠 KT의 절대 주가가 너무 낮고 기대배당수익률 역시 시중 금리 전망을 바탕으로 해도 매력적일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겠다는 판단이다. 2025년과 같이 DPS 증가 기대감이 높아진다면 4.5%에 달하는 기대배당수익률이 충분히 부각될 수 있어서다. 단기 주가 상승 재료가 부족한 것은 사실이나 가을 이후 통신서비스 업종 전반적인 매수세 확산이 나타날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9월부터 5만원 초중반에서는 매수에 임할 것을 권한다. 시중 금리 하락과 더불어 규제 기관과 통신사간 5G SA 도입 및 신규 주파수 할당 논의가 시작될 경우 낮은 주가를 기반으로 주가 상승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도표 1. KT의 분기별 수익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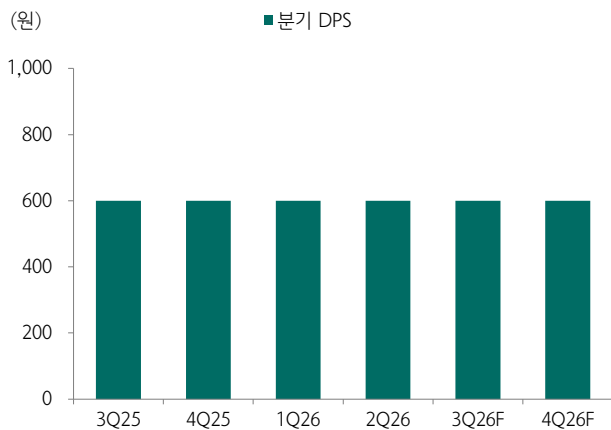
(단위: 십억원, %)

구분	1Q25	2Q25	3Q25	4Q25	1Q26	2Q26	3Q26F	4Q26F
매출액	6,845.1	7,427.4	7,126.7	6,845.0	6,778.4	6,679.9	7,085.7	7,223.0
영업이익	688.8	1,014.8	538.2	227.3	482.7	648.3	551.7	367.0
(영업이익률)	10.1	13.7	7.6	3.3	7.1	9.7	7.8	5.1
세전이익	711.8	974.9	593.4	137.9	512.5	646.1	557.5	374.1
순이익	539.8	687.9	391.5	111.7	352.2	440.2	397.3	258.2
(순이익률)	7.9	9.3	5.5	1.6	5.2	6.6	5.6	3.6

주: 연결 기준, 순이익은 지배주주귀속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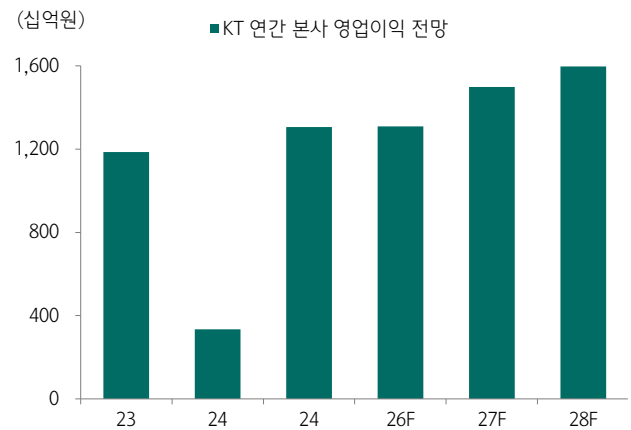
자료: KT, 하나증권

도표 2. KT 분기별 DPS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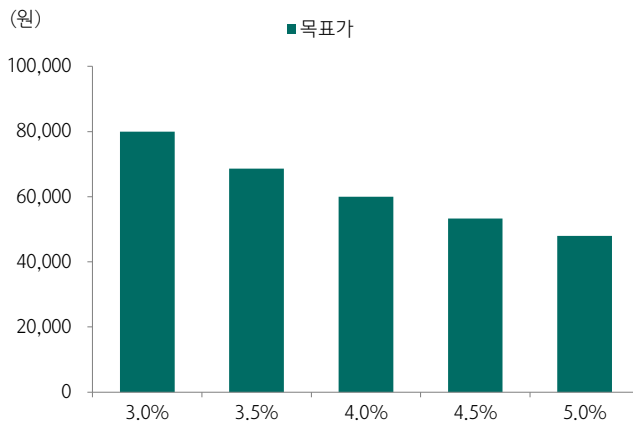
자료: KT, 하나증권

도표 3. KT 연간 본사 영업이익 전망



자료: KT, 하나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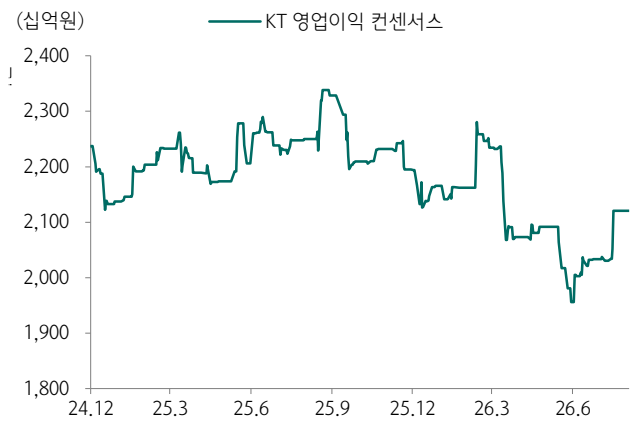
도표 4. KT 기대배당수익률 변화에 따른 주가 예측



주: DPS 2,400원 가정

자료: KT, 하나증권

도표 5. KT 2026년 연결 영업이익 컨센서스 추이



자료: 에프앤가이드, 하나증권

2026년 9월 1일 | 산업분석_Update

Overweight

Top Picks 및 관심종목

*CP 2026년 08월 31일

SKT(017670)

BUY | TP 140,000원 | CP 94,200원

KT(030200)

BUY | TP 76,000원 | CP 53,400원

LGU+(032640)

BUY | TP 20,000원 | CP 14,990원

통신서비스 9월 투자 전략

매도 중지, 이제 장기 매수로 전환하세요

9월 투자 매력도 '높음' 제시, 국내에서도 피지컬 AI 사업 본격화될 전망

국내 통신서비스 업종에 대한 12개월 투자 의견을 비중확대로 유지한다. 더불어 2026년 9월 통신서비스 업종 투자 매력도를 '높음'으로 제시한다. 미국과 마찬가지로 국내에서도 피지컬 AI가 빅 이슈로 부상할 것이기 때문이다. 상반기 실적이 예상보다 양호하게 발표됨에 따라 2026년 실적 호전 및 주주 환원 증대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올 가을부터 국내에서도 피지컬 AI 육성을 위한 신규 주파수 할당 및 AI 기지국으로의 진화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기대를 갖게 한다.

AIDC에 이어 AI 기지국 이슈 될 것, DPS 성장 기대감 높아지며 주가 오를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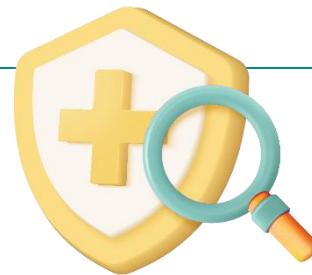
2026년 9월 통신서비스 업종 수익률은 시장수익률을 상회할 전망이다. 단기 코스피 상승이 나타난다고 가정해도 급등만 아니라면 통신주가 시장 수익률을 앞설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2027년 이후 서비스매출액 성장과 더불어 장기 배당 증가 기대감이 높아질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9월 통신 서비스 업종 이슈는 그리 많지 않다. 그러나 중요한 이슈는 많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 1) 미국 주파수 경매 및 5G SA 투자 본격화, 2) 국내 피지컬 AI 네트워크 전략 및 신규 주파수 할당 로드 맵, 3) 국내 독자 파운데이션 AI 모델 최종 사업자 선정, 4) 통신사 데이터 센터 사업 확장 등이 대표적이다. 전체적으로 볼 때 장기적으로 통신산업에 중요한 이슈들이 대거 포진해 있으며 주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커질 수 있는 사안이 대거 눈에 띈다. AI 데이터센터 확장을 통한 이익 증가 및 배당 재원의 추가 확보, AI 기지국 투자를 통한 본사 이동전화 APRU 성장의 기반을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호재가 악재를 압도할 것이란 판단이다.

9월 종목별 투자 매력도는 SKT>KT=LGU+, AI 성과가 중요한 시점

통신서비스 업종 12개월 Top Pick을 SKT로 유지한다. 더불어 9월 통신서비스 업종 내 종목별 투자 매력도를 SKT>KT=LGU+ 순으로 제시하며, 9월 통신서비스 월간 Top Pick을 SKT로 선정한다. SKT가 AI 국책 사업자 선정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당초 예상보다 엔트로픽 IPO 가격이 높게 형성될 전망이고 AI 데이터센터/기지국 관련 수혜 기대감이 높아지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9월에도 재료가 많아 당분간 업종 대표주 역할을 지속할 것이며 연말 5G 요금제 개편과 더불어 시장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Analyst 김홍식 pro11@hanafn.com
RA 이상훈 sanghunlee0121@hanafn.com



하나 Biweekly 제약/바이오(9월 초)

제약바이오 Biweekly | 2026년 9월 1일

Analyst 김선아 seona.kim@hanafn.com

RA 이희경 hk.lee@hanafn.com

때가 되면 이벤트가 있었던 종목부터 오른다

1) 2026년 9월 제약/바이오 산업 Previe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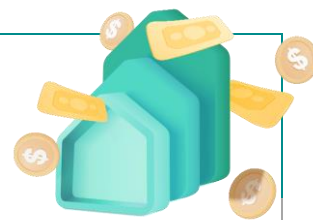
- 8월의 이벤트를 기억해 줘야 하는 이유** 8월은 굵직한 이벤트가 많았다. 한미약품의 비만치료제 HM17321이 Genentech에 총 규모 \$2.3B(약3.2조원), 선금금 8%를 수령하는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하였다. 알테오젠은 ALT-B4에 대해 최대 \$365M(약5,219억원)규모의 계약을, 올릭스도 규모는 비공개지만 Hansoh 제약에 2개의 염기서열에 대한 독점권 계약을 체결하였다. SK바이오팜은 Opakalim을 도입하여 엑스코프리 단독 체제에 대한 우려와 Xenon의 Azetukalner 출시에 대한 우려를 동시에 불식시킬 예정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도 3조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단행하여 성장을 위한 선제적이고 과감한 투자를 위한 자본을 조달하였다. 상기에 나열한 이벤트는 기업에 긍정적인 요소라 판단하나, 금리 상승이라는 저항에 부딪히며 상승세는 제한적이었다. 특히 한미약품의 Genentech향 L/O 후의 주가 상승 수준은, 6/1일 소네펠글루타이드의 Lilly향 L/O 때만큼 실망스럽다. 경기 확장 기반의 고금리, 유동성 장세에 대한 기대 소멸로 밸류에이션 회복이 더디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분위기이니 (8/31일자 이재만 위원의 "무엇을 사서 4분기를 대비할까" 리포트 참고), 제약/바이오에만 다른 분위기를 기대하기 어렵긴 하다. 이런 분위기에서는 밸류에이션에 대한 고민도 깊어지기 마련이다. 그런데 매크로 환경 하에 모든 종목의 상승세가 제한되고, 밸류에이션에 대한 고민이 깊어질수록, 시장 전체의 상승 분위기가 왔을 때 화재 이벤트가 있었던 종목이 가장 빠르게 반응하고 상승률도 높아질 수 밖에 없다. 한편 투자자에게 종목 선별에 대한 고민을 가중하는 "송강제"가 9~10월에서 내년 초로 더 늦춰질 전망이다, 종목 선별과 비중 확대가 조금은 더 쉬워진 분위기다.
- 더욱 거세지는 유전자 치료제에 대한 관심** Moderna/Merck가 공동개발한 개인 맞춤형 mRNA 항암백신인 intismeran에 대한 임상 3상 INTERpath-001 결과가 성공적임을 발표하면서, 국내 관련 종목들이 급등하였다. 당일 상승세가 강했던 종목 중 짚어볼 종목만 살펴 보면 1) 전달체 기술을 보유하고, '23년 항암백신을 실제 개발할 목적의 MOU를 체결한 바 있었던 삼양바이오팜, 2) 선형의 mRNA 보다 안정성이 높은 원형 RNA 기술을 보유한 알지노믹스, 3) LNP 및 mRNA 생산능력을 갖고 있는 에스티팜이 있다. 이들이 Moderna/Merck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번 임상 성공은 항암제 시장에 새로운 modality의 등장을 알리는 것으로서, 흑색종에 그치지 않고 폐암, 신장암, 방광암, 전립선암 등 주요 고형암종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고, 항암백신에 새롭게 도전하는 기업들도 증가할 것이란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한편, 비슷한 시기에 BioNTech/Roche는 단독 보조요법으로써 대장암 백신2상을 진행했으나 효능 부족으로 중단했는데, Moderna/Merck는 면역관문저해제인 키트루다와 병용하여 임상을 진행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Moderna/Merck가 개발 중인 Intismeran autogene은 IM(근육)주사라 알테오젠 기술이 적용된 Qlex와의 병용으로 개발할 이점이 크다. (BioNTech/Roche의 Autogene cevumeran은 IV). Moderna/Merck가 데이터는 공개하지 않았는데, LBA를 제출하고 학회에서 발표하기 위함인 것으로 보이니, 주요 항암 학회인 10월ESMO에서 발표할 가능성에 주목하자.

2) 2026년 9월 추천 종목

- 9월 코스피 Top pick: 삼성바이오로직스, SK바이오팜** 1)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이번 유상증자는 올해 하반기부터 '29년 내 빠르게 발표될 CAPEX의 확대 공시의 예고편이라 판단되어, 단기 및 장기적인 관점으로 추천한다. 2) SK바이오팜은 2nd 프로덕트로서 Opakalim을 도입하였고, 하반기 탑라인 공개는 기대할만한 이벤트가 될 것이다.
- 9월 코스닥 Top pick: 알테오젠, 리가캠바이오** 1) 알테오젠은 추가 기술이전과 국민성장펀드의 수혜, 송강제 1군으로 가장 유력한 기업으로써 중장기적으로도 매력적이다. 2) 리가캠바이오도 서브라이선스로 하반기 내 추가 L/O 가능성 높은 분위기이니 인내심을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

국내 투자의 확대에 건설 수혜(DC/LH)

건설 Weekly | 2026.9.1



Analyst 김승준 sjunkim@hanafn.com

Analyst 하민호 minhoha@hanafn.com

주간 동향 및 이슈

주간 투자 전략 및 이슈 점검

- 수익률은 건설업이 코스피 대비 17.4%p 상회했다. 지난 주 수급은 기관과 연기금이 매수, 외인이 매도했다. 기관은 삼성물산을 매도했으며, 현대건설을 가장 크게 매수, 대부분의 건설주를 매수했다. 외인은 현대건설을 가장 크게 매도, 대부분의 건설주를 매도했다. 전반적으로 코스피가 소폭 하락한 반면, 건설주는 크게 상승했다. 미국의 웨스트하우스 지분 인수 제안 소식에 원전주(현대건설, 대우건설)가 크게 상승했다.
- 전국 매매수급동향은 99.9으로 3주 만에 상승했다(+0.60%p). 전국 아파트 매매가는 52주 연속 상승(+0.11%), 전세가는 63주 연속 상승했다(+0.11%). 수도권 매매가는 78주 연속 상승(+0.22%), 전세가는 79주 연속 상승했다(+0.20%). 서울 매매가는 83주 연속 상승(+0.30%), 전세가는 80주 연속 상승(+0.23%)했다. 지방광역시는 보합, 기타지방은 소폭 상승했다(+0.01%). 전세가는 지방광역시 56주 연속, 기타지방 52주 연속 상승했다(각각 +0.07%, +0.03%). 광역시별 매매가는 울산(+0.07%), 대전(+0.03%), 전남광주(+0.02%), 인천(+0.01%)이 상승, 대구(-0.01%), 부산(-0.02%)이 하락했다.
- 데이터센터에 대한 투자는 현재 진행형이다. GS그룹은 동해시제1캠퍼스, 제2캠퍼스, 제3캠퍼스 법인을 신설했다. 6월에 설립된 GS AI인프라를 중심으로 캠퍼스 법인을 별도로 둔 구조다. 1캠퍼스에 70억원, 제2,3캠퍼스에 각 35억원을 투자했다. 100~150MW 규모로 11월에 착공한 뒤 100~150MW를 추가로 구축하는 등 단계적 증설 방안이 검토 중이다. 데이터센터가 지어질 북평제2산단 사업 용지의 용도변경(제조업→정보서비스업)도 완료됐다. 그리고 북평제2산단 부지 위에 위치한 DB월드공장(DB하이텍) 부지 약 10만평 매입도 검토 중이다. 1단계 사업 진척 상황에 따라 추가 부지 매입이 전망된다. SK는 AI데이터센터 사업 구조를 재편했다. SK텔레콤이 사업을 총괄하며, SK하이퍼가 신규 개발을, SK호라이즌이 기존 DC 운영이다. 최근 SK이노베이션 자회사인 SK지오센트릭이 플라스틱 재활용 복합단지 조성 목적의 울산 부지(약 6만평)를 SK하이퍼에 매각했다. 해당 부지에 데이터센터를 구축할 것으로 전망된다.
- LH가 5개년 발주계획을 발표했다. 26년 5만가구, 27년 7.6만가구, 28~30년 매년 10만가구 착공 계획이다. 발주규모는 26년 14.9조원, 27년 25.7조원, 28년부터는 매년 30조원이다. 9월부터 연말까지만 약 10조원 발주할 계획이며, 신규 아파트 건설공사 5.2조원, 비아파트 시설공사 4.8조원이다. 대부분 3기 신도시의 신규 아파트 발주가 예상되며, 비아파트 공종에서도 송전선 지중화 공사, 택지 및 산업단지 부지조성 공사 등이 발주가 계획되어 있다. LH가 직접시행하는 민간참여공공주택사업 발주도 예정되어 있다. 하반기에 약 0.8만가구 공모할 예정이며, 2027년에는 4만가구(15.2조원)까지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직접시행물량은 2.3만가구이며 주상복합 1.9만가구, 공동주택 0.4만가구로 구성된다. 나머지 1.7만가구는 기존 민참사업을 공급할 예정이다. 모듈러 주택도 올해 약 2천가구 공모하며, 2030년까지 매년 3천가구 이상 발주를 유지하며 2030년에는 5천가구 발주가 목표다.
- 하반기 여전히 가장 유효한 상승 재료는 데이터센터다. 특히 GS그룹의 동해 AI데이터센터 관련 뉴스(인허가, 자금조달) 등이 나타날 것으로 보고, 관련 종목으로 GS건설을 TOP PICK으로 추천한다. 하반기 데이터센터에서 2조원 수주를 기대하는 DL이앤씨를 차선후주로 추천한다. LH의 발주가 본격화되고 내년부터 더 많아질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공공 비중이 높은 중소형건설사(금호건설, 계룡건설 등)도 눈 여겨 볼 필요가 있다. 재건(해외EPC), 원전 등은 시간이 필요하다.

2026년 8월 31일 | 글로벌 리서치

산업 Issue

글로벌 전력기기/에너지

전력 국가비상사태 선포, 트럼프 1기와의 차이점

트럼프 대통령의 전력망 국가비상사태(National Emergency) 선포

8월 26일, 트럼프는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며 외국산 전력장비를 규제하는 행정명령(14420)에 서명했다. 지난 7월 28일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외국산 전력 인버터를 커버리스트에 새로 추가하며 신규 진입을 차단한 데 이어 이번 행정명령에서는 규제 대상을 외국산 대량 전력시스템(Bulk power system)으로 확대했으며 FCC 규제와 달리 소급 적용도 가능하다. 외국산 대량전력시스템에는 외국이 원격으로 해당 장비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디지털 백도어 설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잠재적 위협이 있으며 미국이 외국산 장비에 계속 의존하는 것은 공급망 취약성을 만든다는 이유다.

변압기, 캐패시터, BESS, UPS 등 규제 대상이 광범위

이번 행정명령이 정의하는 대량전력시스템은 지역 배전에 사용되는 시설을 제외하고 상호 연결된 송전망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시설과 제어시스템, 69kV 이상의 송전선을 포함한다. 대량전력시스템 전기 장비는 대량전력시스템의 변전소, 제어실, 발전소에 사용되는 리액터, 캐패시터, 변전소용 변압기, 유틸리티급 인버터, BESS, UPS, 대형/소형/비상용 발전기, 분산 제어시스템을 광범위하게 포함하고 있다. 미국에서 이루어지는 해당 전력망 장비들의 거래에 있어 에너지부 장관이 (i) 장비를 만든 회사가 위험국가로 지정된 외국 기업에 의해 소유되거나 지배되는 경우, (ii) 해킹 위험이 있거나 국가안보상 위험하다고 판단할 경우 금지된다. 위험국가로는 중국, 러시아, 이라크, 베네수엘라 등과 에너지부 장관이 외교 정책에 해가 되는 행위에 관여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외국 정부가 포함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1기와 유사한 행정명령, 효과는 훨씬 뚜렷할 것

트럼프 대통령은 1기였던 2020년 5월 1일에도 같은 법적 근거를 기반으로 거의 동일한 내용의 행정명령(13920)을 공개한 적이 있다. 다만 이번 행정명령은 대상 장비를 인버터, 배터리, 소프트웨어까지 확대했으며 기존 설치 장비에 대한 권한도 권고안을 마련하는 수준에서 교체, 제거를 명령할 수 있는 권한으로 강화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강력한 조치로 해석된다. 게다가 2020년 행정명령은 2021년 1월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실질적인 효과 없이 마무리되었다. 이번 행정명령 역시 120일 이내 세부 시행규칙이 발표될 예정으로 불확실성이 있으나 아직 트럼프의 임기가 2년 이상 남아있어 1기보다 뚜렷한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 안보를 근거로 국방, 통신, 전력인프라까지 공급망 재편 영역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Analyst 김시현
sihyun_kim@hanafn.com

단기 투자유망종목

글로벌투자분석실



종목	편입일	기준가	전일증가	수익률	투자 포인트
SK하이닉스 (000660.KS)	8/31	1,653,000	1,674,000	1.27%	2025~2027년 누적 FCF의 50% 이상을 주주에게 환원할 계획 - 자기주식 취득만 40조원이면 긍정적. 추가 주주 환원도 대기
삼성바이오로직스 (207940.KS)	8/31	1,486,000	1,518,000	2.15%	- 록빌 공장 매출 반영과 교환율 효과로 연간 매출 성장 가이드선 상단 달성 가능성 높아 - PolyPeptide 인수를 통한 사업 다각화가 진행되며 중장기 생산능력·사업 영역 확대
삼성SDI (006400.KS)	8/31	571,000	577,000	1.05%	- 북미 ESS 라인 본격 가동과 소형전지 가동을 상승으로 하반기 흑자 기조 지속 기대 2Q26 7개 분기 만의 흑자 전환에 이어 2027년 영업이익 1.48조원 전망
SK텔레콤 (017670.KS)	8/31	98,600	94,200	-4.46%	- 국책 AI 사업자 선정·SK하이퍼 설립·AI RAN 구축 확대를 통해 AI 사업의 성과 예상 - 향후 AI 데이터센터 SPC 이익의 배당 유입에 따른 장기 DPS 성장 가능성도 긍정적
S-Oil (010950.KS)	8/31	149,200	150,100	0.60%	- 베네수엘라의 OPEC 탈퇴 및 미국과의 에너지 협력 강화 가능성 대두 - OPEC의 균열, 중동의 가격 결정력 약화 및 아시아 정유업체의 원가 경쟁력 강화 요인
대한항공 (003490.KS)	8/31	28,700	28,100	-2.09%	- 화물운임, 코로나19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급등해 유가 상승의 부담을 상당히 상쇄 2026년 12월 아시아나항공과의 합병을 마무리할 예정. 합병 이후 실적 개선 기대
이수페타시스 (007660.KS)	8/31	112,800	114,000	1.06%	- AI 가속기·스위치형 다중적층 MLB 수요 확대와 고부가 제품 믹스 개선으로 호실적 기록 - HDI 대응력 확보 및 고객사 다변화가 향후 밸류에이션 리레이팅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농심 (004370.KS)	8/31	450,500	443,500	-1.55%	2Q26 Review 매출액 9,561억원(YoY +10.2%), 영업이익 593억원(YoY +47.6%) 기록 - 북미 수익성 개선 및 글로벌 라면 업체로의 밸류에이션 재평가 기대
코오롱인더 (120110.KS)	8/31	56,500	59,500	5.31%	- 석유수지 평가 상승과 아라미드 가동을 개선 등에 힘입어 호실적 기록 - 하반기 mPPO 김천 2공장 증설 효과와 CPI 필름 신규 모델형 Full 생산 기대
실리콘투 (257720.KQ)	8/31	53,300	54,200	1.69%	- 미국·유럽 오프라인 리테일러 주문 확대에 힘입어 2Q26 호실적 기록 - 한국 화장품 산업 역사상 최대 수출 모멘텀의 최대 수혜 업체

단기 투자유망종목 수익률

주간(This Week)		누적(YTD)	
수익률	BM대비 수익률	수익률	BM대비 수익률
+0.50%	+0.04%p	+75.99%	+14.76%p

주: BM은 KOSPI. BM대비 누적수익률은 일 평균 종목수익률을 BM과 비교 적용한 후 누적 계산. 주기 단위로 Rebalancing. 손절가(Loss cut)는 종가기준 -15%선 적용

중장기 투자유망종목

글로벌투자분석실



종목	편입일	기준가	전일종가	수익률	투자 포인트
S-Oil (010950.KS)	8/31	149,200	150,100	0.60%	• 베네수엘라의 OPEC 탈퇴 및 미국과의 에너지 협력 강화 가능성 대두 • OPEC의 균열, 중동의 가격 결정력 약화 및 아시아 정유업체의 원가 경쟁력 강화 요인
코스맥스 (192820.KS)	8/24	271,000	300,000	10.70%	• 국내 고성장과 미국 법인 흑자전환, 동남아 턴어라운드가 동시에 진행 • K-뷰티 수출 호조와 글로벌 ODM 1위 경쟁력이 본격 반영되는 가운데 12MF PER 11배 수준
NAVER (035420.KS)	8/18	228,000	217,000	-4.82%	• AI 데이터센터 공급 부족 속 엔비디아 지분투자 및 200MW 고객사 계약 가시화 • 7년 이상의 GPU 운영 역량을 기반으로 2027년부터 AI DC 매출이 본격화될 전망
한화에어로스페이스 (012450.KS)	8/10	1,097,000	1,102,000	0.46%	• K9 자주포·천무 중심의 유럽·중동 수출 확대에 지상방산 수주잔고 약 39.7조원까지 증가 • 하반기로 갈수록 실적 성장과 수주 기대감 재차 확대될 전망
삼성SDI (006400.KS)	8/10	459,000	577,000	25.71%	• 북미 ESS 라인 본격 가동과 소형전지 가동을 상순으로 하반기 흑자 기조 지속 기대 • 2Q26 7개 분기 만의 흑자 전환에 이어 2027년 영업이익 1.48조원 전망
팬오션 (028670.KS)	8/10	6,040	5,670	-6.13%	• BDI 강세와 탱커 운임 상승으로 벌크·탱커 부문 이익이 확대되며 호실적 기대 • SK해운 인수 VLCC의 실적 기여와 중장기 운임 강세가 추가 성장 모멘텀으로 작용
삼성전자 (005930.KS)	8/3	262,500	260,000	-0.95%	• AI 수요 견조하게 유지되는 가운데, DDR4 가격상승과 더불어 NAND 업황 개선 맞물려 • DDR 및 NAND 가격 상승은 레거시 비중이 높은 삼성전자에게 긍정적
삼성전기 (009150.KS)	8/3	1,142,000	1,458,000	27.67%	• AI 서버용 고용량 MLCC 수요가 확대되는 가운데 공급사들의 증설은 제한적 • AI 가속기용 FCBGA의 대형화·고다층화로 구조적 공급 부족 장기화 전망
종산 (103140.KS)	8/3	71,200	81,900	15.03%	• 전기동 가격 강세에 따른 메탈 이익과 해외 신동 자회사 수익성 개선 기대 • 2분기 이연된 방산 매출의 3분기 인식으로 실적 반등 예상
KB금융 (105560.KS)	7/13	184,400	173,300	-6.02%	• 2분기 추정 순익 1.97조원으로 2조원에 육박해 지주사 설립 이후 분기 최대 순익 예상 • 홍콩 ELS 과징금 이슈 해소로 주주환원 확대 및 밸류에이션 매력 부각
삼양식품 (003230.KS)	7/1	1,119,000	1,531,000	36.82%	• 미주·중국·유럽 중심의 해외 매출 고성장과 밀양2공장 가동을 상순으로 실적 성장 기대 • 중국 신공장 가동 및 추가 생산시설 검토로 해외 비중 확대와 단기 실적 모멘텀 부각

중장기 투자유망종목 수익률

분기(3Q)		누적(YTD)	
수익률	BM대비 수익률	수익률	BM대비 수익률
-13.76%	+2.71%p	+43.47%	-17.79%p

주: BM은 KOSPI, BM대비 누적수익률은 일 평균 종목수익률을 BM과 비교 적용한 후 누적 계산. 분기 단위로 Rebalancing. 손절가(Loss cut)는 종가기준 -15%선 적용

ETF 투자유망종목

해외주식분석실



국내 ETF

종목	편입일	기준가	전일종가	수익률	투자 포인트
KODEX 미국시테크 TOP10 (485540)	2026.07.16	16,205	14,950	-7.7%	- 미국에 상장된 대형 기술주 중 AI 관련 키워드 유사성이 높은 10개 종목을 선별하여 유동시가총액과 LLM 스코어링을 합산하여 편입 비중을 산정. 1위~3위 기업은 각각 20% 비중으로 편입해 집중도를 높인 구조 - 현재 핵심 편입 종목은 엔비디아, 구글, 마이크로소프트이며, AI 산업 트렌드 변화에 맞춰 새롭게 부상하는 AI 기업들을 포트폴리오에 반영할 수 있는 구조
KODEX AI반도체 TOP2플러스 (395160)	2026.02.27	29,560	39,025	32.0%	6세대 고대역폭메모리(HBM4) 양산 본격화에 따른 수혜가 기대되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및 한미반도체 등 국내 AI 반도체 밸류체인 핵심 기업에 집중 투자 - 온디바이스 AI 확산과 AI 서버 수요 폭증으로 인한 메모리 수급 불균형 속에서, 차별화된 기술력을 보유한 국내 반도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들의 실적 개선 및 가치 재평가 기대
TIGER 글로벌 AI사이버보안 (418670)	2026.07.16	18,430	17,720	-3.9%	- 글로벌 기업 중 사이버보안 연관 산업에서 매출이 50% 이상 발생하는 기업을 시가 총액 가중방식으로 편입하는 패시브 ETF - AI 확산 과정에서 사이버보안에 대한 인식이 시로 인한 시장 잠식 우려 대상에서 AI 도입 시 필수 인프라로 전환됨에 따라 AI 보안 기업들의 가치 재평가 기대
KODEX 미국 AI전력핵심인프라 (487230)	2026.07.16	23,200	18,535	-20.1%	- AI 성장 과정 속에서 전력 인프라는 병목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핵심 분야로 관련 기업들은 공급자 우위 구조 속에서 수익성이 개선되는 흐름 - 주요 빅테크의 파트너로 선정되고 있는 미국 전력 생산·송배전·데이터센터 핵심 10개 종목에 집중 투자
RISE AI전력인프라 (0101N0)	2026.08.28	20,520	19,910	-3.0%	- 국내 AI 전력 생태계에 포괄적으로 투자하는 ETF로 발전 설비뿐 아니라 송배전, 데이터센터 후공정까지 전력 밸류체인 전반을 커버 - 하이퍼스케일러의 인프라 투자 확대와 북미 지역의 노후 전력망 교체로 전방 수요가 견조한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전력망 보호를 위한 행정명령은 국내 전력기기 업체에 수혜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HANARO 글로벌 금채굴기업 (473640)	2026.08.28	36,855	35,580	-3.5%	- 글로벌 우량 금 채굴 기업에 투자하는 ETF. 금 현물 투자와 달리 편입 기업들의 배당 지급을 통해 추가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구조 - 미국 정부의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는 실물 자산인 금의 가치를 지지하는 요인으로, 금 가격 상승 국면에서 레버리지 효과가 기대되는 금 채굴 기업들의 투자 매력도 부각될 전망
TIME 글로벌우주테크 &방산액티브 (478150)	2026.07.16	21,300	19,380	-9.0%	- 우주 산업의 성장과 방산기업들의 안정적인 실적 모멘텀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액티브 ETF로 시장 상황에 맞게 편입 종목과 비중을 유연하게 조정 - SpaceX 상장 이후 본격화되는 우주 산업 투자 사이클과 글로벌 주요국들의 국방비 증액 추세에 따른 구조적 수혜를 누릴 것으로 기대
ACE 고배당주Plus 커버드콜액티브 (0199C0)	2026.07.16	9,980	9,230	-7.5%	- 고배당주 80%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각각 10% 비중으로 편입하여 고배당주 포트폴리오로 시장의 흐름을 추종할 수 있는 커버드콜 액티브 ETF - 포트폴리오의 30% 비중까지 콜옵션을 매도하는 구조로 월 분배금 재원을 마련하고 비과세 배당 종목을 편입하여 배당과 절세를 함께 추구. 향후 국내 데일리 옵션(ODTE) 도입 시 추가적인 배당 재원 확보 가능. 액티브 운용방식으로 시장 상황에 따라 커버드콜 비중 조절

주1) 기준가는 편입일 기준 최신 마감 종가(한·중·일 ETF: 편입 당일 종가, 미국 ETF: 편입 전영업일 현지 종가) 기준

주2) 전일종가는 작성일 기준 최신 마감 종가(한·중·일 ETF: 작성 당일 종가, 미국 ETF: 작성 전영업일 현지 종가) 기준

주3) 국내 ETF의 기준가 및 종가 통화: 원(KRW)

Global ETF

종목	편입일	기준가	전일종가	수익률	투자 포인트
SPHQ (미국 대형 퀄리티 주식)	2026.03.23	75.24	85.71	13.9%	- 수익성(ROE), 이익의 질(미결제영업자산 변동), 재무 건전성(레버리지)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S&P500 내 최상위 우량주 100개를 선별해 투자 - 매크로 불확실성 및 실적 변동성이 확대되는 구간에서 탄탄한 펀더멘털을 보유한 기업에 집중해 지수 대비 견고한 하방 경직성과 장기적인 초과 수익 추구
KBWB (미국 은행)	2026.07.16	98.44	96.28	-2.2%	- IPO와 M&A 시장 회복, AI 인프라 자금조달 확대에 따른 수혜를 기대할 수 있는 미국 대형은행들에 집중 투자하는 ETF - 미국 금융 섹터는 트럼프 행정부의 금융 규제 완화 기조 속 주주환원 기대감이 높아 지는 가운데 대형은행을 중심으로 실적 성장 국면이 전개될 전망
CHAT (생성형 AI 및 기술)	2026.07.16	88.42	87.04	-1.6%	- 생성형 AI 관련 기술을 통해 매출을 창출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들에 집중 투자하는 ETF로 AI 밸류체인의 실질적인 성장 모멘텀을 누릴 것으로 기대 - 액티브 운용 방식으로 유연한 포트폴리오 조정이 가능하며 OpenAI와 앤트로픽 지분을 보유한 소프트뱅크그룹과 SK텔레콤을 편입해 비상장 AI 파운데이션 모델 기업에 대한 간접 노출까지 확보한 차별화된 구성이 특징
CIBR (사이버 보안)	2026.07.16	93.09	98.56	5.9%	- 사이버보안 기업으로 분류되는 글로벌 기업들을 시가총액 가중방식으로 편입하는 대표적인 사이버보안 테마 ETF - 상위 5개 종목 합산 비중을 40%로 제한하여 대형주에 집중된 구조이면서도 그 외 네트워크 인프라, 사이버 방산 관련 기업까지 함께 편입해 사이버보안 밸류체인 전반에 노출 가능
SMH (글로벌 반도체)	2025.11.24	326.13	553.11	69.6%	- 대형주 비중이 높은 대표 글로벌 반도체 ETF. 매출의 50%가 반도체와 반도체 장비 생산 분야에서 발생하는 기업들을 시가총액 가중방식으로 편입 - 엔비디아의 실적과 가이드언스를 통해 AI 산업의 꾸준한 성장 모멘텀 확인. SMH는 NVIDIA와 TSMC가 30% 이상의 비중을 차지. Capex 경쟁 지속 가운데 소비된 AI 시장 확장, 신제품 교체 기반의 견고한 수요 기대 유효
PAVE (미국 인프라)	2026.08.24	56.39	55.31	-1.9%	- 미국 인프라 산업 관련 기업들로 구성된 인프라 테마 ETF. 산업재를 중심으로 소재, 건설장비, 운송, 엔지니어링 기업들을 편입하여 구성 - 금융시장 환경 변화 가운데 향후 정책 모멘텀 반영 가능성. 정치적 관점에서도 리쇼어링은 양당 모두 선호하는 방향성. 품목별 관세의 연속성 고려시 협상 과정에서 미국 내 인프라 수요 꾸준히 증가 전망
GRID (전력망 및 스마트그리드)	2026.07.16	182.63	179.19	-1.9%	- 스마트그리드 및 전력 인프라 관련 매출 비중이 높은 글로벌 전력기기 기업들을 포괄적으로 편입하는 전력 인프라 테마 ETF - 미국의 노후화된 전력망 교체 사이클과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 급증이 맞물리며 전력 인프라 기업들의 중장기적인 실적 성장 모멘텀 지속될 것으로 기대
XBI (바이오테크)	2026.07.16	156.22	162.38	3.9%	- 미국 바이오테크 종목 약 150개를 동일가중 방식으로 편입하는 분산형 ETF로 중소형 종목들의 임상 및 M&A 이벤트 수혜를 누릴 수 있는 구조 - 글로벌 빅파마들이 특허 만료를 앞두고 파이프라인 확보를 위해 M&A를 비롯한 투자에 적극 나서면서 바이오 업종 전반의 투자 심리 개선 기대

주1) 기준가는 편입일 기준 최신 마감 종가(한·중·일 ETF: 편입 당일 종가, 미국 ETF: 편입 전영업일 현지 종가) 기준

주2) 전일종가는 작성일 기준 최신 마감 종가(한·중·일 ETF: 작성 당일 종가, 미국 ETF: 작성 전영업일 현지 종가) 기준

주3) Global ETF의 기준가 및 종가 통화: 달러(USD)

Calendar

글로벌투자분석실

SUN	MON	TUE	WED	THU	FRI	SAT
8.30	8.31	9.1	9.2	9.3	9.4	9.5
	- 한국 7월 광공업생산 (3.6%, 이전치 6.0%) - 일본 7월 소매판매 (2.4%, 이전치 -3.9%) - 중국 8월 제조업 PMI (49.8, 이전치 49.2) - 중국 8월 서비스업 PMI (49.0, 이전치 49.0)	- 한국 8월 수출 (E 63%, 이전치 62.9%) - 한국 8월 수입 (E 25%, 이전치 26.5%) - 일본 8월 제조업 PMI (E --, 이전치 55.1) - 한국 8월 제조업 PMI (E --, 이전치 53.1) - 유로존 8월 제조업 PMI (E 52.8, 이전치 52.8) - 유로존 8월 CPI (E 3.3%, 이전치 2.9%) - 유로존 7월 실업률 (E 6.3%, 이전치 6.3%) - 미국 8월 ISM제조업지수 (E 55.2, 이전치 55.6)	- 한국 8월 CPI (E 3.2%, 이전치 2.8%) - 미국 8월 ADP 고용 변화 (E 47k, 이전치 44k) - 미국 7월 내구재 주문 (E 1.1%, 이전치 1.1%)	- 일본 8월 서비스업 PMI (E --, 이전치 52.3) - 유로존 8월 서비스업 PMI (E 51.7, 이전치 51.7) - 유로존 7월 PPI (E 5.4%, 이전치 4.6%) - 미국 8월 ISM서비스업지수 (E 54.1, 이전치 55.6)	- 미국 8월 비농업고용지수 (E 55k, 이전치 -23k) - 미국 8월 실업률 (E 4.1%, 이전치 4.1%)	
9.6	9.7	9.8	9.9	9.10	9.11	9.12
	- 일본 7월 선행지수 (E --, 이전치 116.5) - 독일 7월 산업생산 (E --, 이전치 0.2%)	- 한국 2분기 GDP P (E --, 이전치 0.6%) - 일본 2분기 GDP F (E --, 이전치 1.1%) - 미국 8월 NFIB 소기업 낙관지수 (E --, 이전치 99.8)	- 한국 8월 실업률 (E --, 이전치 2.8%) - 중국 8월 PPI (E --, 이전치 3.5%) - 중국 8월 CPI (E --, 이전치 0.5%)	- 유로존 9월 기준 금리 (E --, 이전치 2.4%) - 미국 8월 PPI (E --, 이전치 4.7%) - 미국 8월 기준주택매매 (E --, 이전치 -1.7%)	- 일본 8월 PPI (E --, 이전치 7.2%) - 미국 8월 CPI (E 3.4%, 이전치 3.4%) - 미국 8월 근원 CPI (E 2.4, 이전치 2.5%)	

주: 1) 괄호 안은 예상치(E), 전월 순, 한국시간 기준 (*E)는 당사 추정치. 2) 유로권, 북미는 전월대비(PCE 디플레이터는 전년동월대비), 아시아, 신흥국은 전년동월대비 기준, 3) P(속보치), A(잠정치), F(확정치)
 자료: Bloomberg, 하나증권

Compliance Notice

- 본 조사항목은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의 증명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담당자는 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외부의 압력이나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았으며,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신의성실하게 작성하였습니다.
- 본 자료는 기관투자자 등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회사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담당자는 현재 해당회사의 유가증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